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한국 禪 대중화 본산 세계명상마을 문열다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4월 20일 공식 개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비롯한 한국 선을 세계인들에게 전할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이 4월 20일 오후 1시 문을 연다.

한국불교 대표 수행터전인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인근에 위치한 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간화선 중흥과 세계화를 결의한 전국선원수좌회의 염원이 담긴 국제선센터다. 간화선을 K-meditation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도량으로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높다.

봉암사 인근 희양산 자락 위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성철, 청담 스님 등 한국불교 중흥을 일군 선지식들이 주석하며 정진한 봉암사 인근에 자리했다. 문경 희양산 자락의 8만 4000여㎡(2만 5410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 수행이 가능한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계명상마을은 일반인 전용 수행공간과 수좌의 숲속 수행처가 함께 있는 승가수행공동체 국민참선방으로 꾸며졌다. 명상관 2동 · 명상숙소 · 세미나실 · 명상카페 등으로 이뤄졌다.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 수행이 가능한 선체험센터다.

여기에 추가 불사를 통해 마당 있는 '무문관 꾸띠(개인 수행처)', 외국인 스님과 스님 개인 수행처 '숲속 꾸띠', 일반인 개인 수행처 꾸띠, 숲속 명상길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집중수행, 선지식 지도 눈길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서는 '9일간의 화두명상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매월 한차례씩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3일간 수행, 평일 선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주말 3일 수행 외 다른 프로그램은 '고엔카위파사나 10일 코스' 처럼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8월 15일부터 6박 7일간 대한민국 청년 희망캠프를 열고, 300여 한국청년들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명상마을 선스테이는 참선 마스터인 월암 스님(용성선원장), 선법 스님(정진선원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지도하게 된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수좌스님들이 직접 질문응답을 이어간다. 선스테이엔 3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초창기엔 1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다.

추가 불사에 불자 관심 필요

이번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은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 대선사들을 모시는 '제4차 간화선대법회' 와 함께 진행된다. 화려한 대법회 이면에는 추가불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지난해 12월 10일 상량식을 하며 그 위용을 드러냈고, 12월 25일 국비로 건물공사는 완료했다.

사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불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빈한 수좌 스님들이 불사를 담당하기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사 자부담금의 부담이 컸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세계명상마을 원만 완공을 위해 서울 강남 참불선원을 이끄는 각산 스님을 총괄책임자로 영입, 선원장으로 임명하여 불사가 진행됐다.

희양산 2만 5천 평 부지에
명상관 2동 · 숙소 등 구성
간화선·초기불교 통합수행

주말3일, 9일 집중수행과
여름 청년희망 캠프 예정
수좌 스님들이 직접 지도

무문관 꾸띠, 숲속 꾸띠 등
2차 추가 불사 지속적 추진
K-명상 도량으로 거듭날터

현재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불사는 본동 역할을 하는 웰컴센터 다목적 체험관과 명상대웅전인 중선방, 하선방, 그리고 참선템플스테이 명상숙소 등 건물이 지어진 상태다. 이제 선방불사와 주변정비 등 나머지 불사가 남아 있다. 선방불사 필요액은 전체불사비 210억원 중 5%인 10억여원이다. 또한 세계명상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교량불사도 과제로 남아있다. 교량불사의 경우 시주공덕자의 이름이 새겨진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한국불교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대자유의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귀의처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는 수행승가 건설에 불심을 다시한번 더 모아주시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5면 특별기획 · 미리보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의 중심건물이 되는 명상대웅전(중선방)과 오른쪽 다목적 체험관의 모습. 미국 유명건축가인 토마스 한라한 플랫대 교수의 설계로 한국불교 전통건축의 현대적 해석이 시도된 건물이다. 사진/봉암사 명상마을=노덕현 기자

신설 '조계종 여성불자회' 조직화 박차

포교원 12일 설립추진위 발족
33명 위촉… 6월에 공식 출범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2일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 을 개최했다.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겠습니다."

조계종 제8대 포교원(원장 범해)이 민주적이고 대의적인 전국 여성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그 첫 발걸음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종단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규모 여성불자 단체가 새롭게 설립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 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대내외적으로 본격적인 조계종 대표 여성 조직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포교원은 이날 발족식에서 전국 교구본사와 직능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포교활동가 중 1080발기인을 대표하는 설립추진위원회 33명을 위촉했다. 설립추진위원 33명은 직할교구 등 전국 교구본사별 대표 여성불자를 포함해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불교단체 대표자들이다. 설립추진위원회는 발족식과 함께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 추진 위원회' 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은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대 총장, 동국대 총장, 역대 교육원장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 담당한다. 이 밖에도 교구본사 주지,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종회의원,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 주지가 지도법사단으로 활동한다.

범해 스님은 발족식에서 설립추진위원들에게 종단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계종의 신도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당부했다. 스님은 "제8대 포교원은 지난 몇 년간의 혼란과 아픔을 딛고 초발심의 각오로 종단 여성 포교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서 "제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대변하고 종단 위상에 걸맞은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을 축하하며 발족식이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할머니와 누이의 마음으로 전국 사찰을 누비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 여성 불자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여성 포교의 전법 가치를 올려주길 바란다"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진이 큰 울림이 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교구본사의 전법활동을 뒷받침하는 교구별, 지역별 여성불자 조직이 만들어지기를 염원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종단을 돕는 여성불자 조직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 본각 스님은 "모두의 원력이 모아져 참신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립추진위는 6월경 지역 · 직능별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80인의 발기인과 함께하는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4월 12일 현재, 1020명 여성불자들이 발기인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추진위원은 대표로 낭독한 설립취지문에서 "가정, 교단, 사회에서 부처님 자비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토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 포교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각지 사찰,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종단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끌어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여성불자를 조직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린 태도로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활발한 대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 대한불교조계종
NAVER Daum
www.buddhism.or.kr

-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 후원계좌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 문의전화 02) 6273-0108, 0109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